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3차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2021년 11월 18일(목), 오후 2시~
온라인 줌 회의실 또는 포스트타워 1006호

주최/주관

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국회의원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가나다순)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 주제 :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 일시 : 2021. 11. 18.(목), 14:00 ~ 17:00
- 장소 : 온라인 줌 회의실 또는 포스트타워 1006호)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4:00~14:10	환영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사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집담회	14:10~17:00	사회 및 facilitator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2차 토론회 결과보고 및 인트로, 집담회 참여 규칙(채팅창 참여자 포함) 패널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경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조합원)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주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장복순 (재미난어린이집 원장) 이지희 (후암어린이집 교사) 자유토론, 추가토론 질의응답(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희승 과장 외) 마무리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2021년 11월 18일 (목) 오후 2시, 온라인 줌 회의실 또는 포스트타워 1006호

▶ 유튜브 생중계 **육아정책연구소_KICCE, 교사노조연맹 TV**



주최/주관 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국회의원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가나다순)

후원/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의 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용인교육시민포럼,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사)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행복한 미래교육포럼 등(가나다순)

진행순서

구분	시간	세부내용
개회	14:00 ~ 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사: 박상희(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축사: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집담회	14:10 ~ 17:00	<p>사회 및 facilitator: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2차 토론회 결과보고 및 인트로, 집담회 참여 규칙(채팅창 참여 포함)</p> <p>패널 김명하(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경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조합원) 윤지혜(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주원(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김현숙(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장복순(재미난어린이집 원장) 이지희(후암어린이집 교사)</p> <p>자유토론, 추가토론 질의응답(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희승 과장 외) 마무리</p>

**연속 토론회
순서**

1차: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 이대로 괜찮은가?(2021. 9. 30.)

2차: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2021. 10. 22.)

▶ **3차: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2021. 11. 18.)** ◀

4차: 미래 유아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2021. 12. 10.)

5차: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의제와 국가교육회의 개선방안(2021. 12. 30.)

※ 사전등록 후 자료집 다운 가능, 사전등록 링크 추후 배포

CONTENTS

환영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사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집담회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7
이경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조합원)	15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20
이주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27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34
장복순 (재미난어린이집 원장)	38
이지희 (후암어린이집 교사)	43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3차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 3차 토론회인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을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조 연맹,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그리고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과 다시 함께 개최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조연맹과 여야 의원님들, 다양한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1차, 2차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파급효과 또한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미래 유아학교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이 담아야 할 내용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코로나 19의 영향과 미래체제개편의 큰 흐름 속에서 개정 누리과정과 미래 유아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는 작업은 현재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와 전염병의 영향과 같은 전지구적인 당면과제, 에듀테크의 활용과 같은 미래교육에서의 의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을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전문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해주시고 유아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사회를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님, 이경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위원회 조합원님,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님, 이주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님,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님, 장복순 재미난어린이집 원장님, 이지희 후암어린이집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더 나은 정책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책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더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을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홍민정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 개편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 3차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의미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육아 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김민석,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운영덕 의원님과 후원 연대를 함께 해주신 귀한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영유아기는 한 인간이 세상을 만나는 첫 시작입니다. 가정과 영유아 대상 기관에서 아이들은 세상을 보고 듣고 자랍니다. 영유아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기관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기쁜 경험을 주고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자 바람일 것입니다. 그 희망과 바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4대권리 중 하나로 아동의 발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권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영유아기는 온전한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영유아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유아 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은 영유아 발달권의 보장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입식 인지 교과목들이 교육이란 이름으로 제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동안 친구, 선생님과 유익한 경험들이 쌓여 그 시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발달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풍성한 교육과정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가 그 초석을 다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수고해주시는 여러 교수님, 교사,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또한 영유아들이 행복한 유아교육 보육 체제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명숙입니다.

미래 유아학교의 교육과정 방향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더불어 유아 교육과 특수교육이 함께 미래 유아교육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주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사회규범 등을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 유아교육에 있어 놀이는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달상의 지연이나 신체적, 인지적 혹은 감각적 장애는 때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놀이 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유아 역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유아와 함께 유아교육에서 제시하는 풍부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이 함께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며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을 모든 유아에게 적합한 보편적 교육과정으로 견인하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특수교육 현장의 많은 현안들을 밝히고 그에 대해 토론하며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담회

김명하 |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경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조합원

윤지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주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김현숙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장복순 | 재미난어린이집 원장

이지희 | 후암어린이집 교사



개정누리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한 정책 방향 제언

김명하 |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유보통합, 유아학교에 대한 염원은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이원화된 시스템의 행·재정적 비효율성은 차치하고라도 의무교육기관으로 유아학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과 국공립 사이의, 그리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유아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상대적으로 협소한 어린이집 시설,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국공립유치원 교사 체제 등 통합을 이루어야 할 주체의 입장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에 있어서도 조직을 연대하고 규합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부족했습니다. 보육과 돌봄을 교육에서 분리해 유아교육을 교육에서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 사회진출을 앞당겨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5세 초등입학을 추진하는 과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CCTV 의무설치를 진행하는 과정, 7년 만에 개정되는 누리과정이 공감이나 적응 과정 없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 등 유아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학자, 연구자, 원장,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참 귀합니다. 유아교육정책을 위한 총 6차례의 공개토론회,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 토론자가 아니어도 채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열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격렬한 논쟁의 장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눌 기회가 전무하던 우리에게 갈등의 기록 자체가 협의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정책이 소수 연구자나 정치인, 특정 집단의 신념이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하나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의 차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의 장기적 비전이 되도록 유아교육 정책형성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이 각자의 처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인으로 우리가 늘 희망하던 영유아가 중심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실천 의지를 잊지 않는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낙관이 필요하고, 오늘의 발표도 그런 날 중 하루이기를 희망하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 누리과정의 의미

- ▶ 국가수준 교육과정
- ▶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 통합
- ▶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시발점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 1차를 시작으로 2007년 7차 교육과정까지 총 7차례 개정되었고, 표준보육과정은 2007년에서야 만들어 졌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교육의 불모지에서 유치원 교육을 체계화하는데 역할했으나, 누리과정이 제정된 2011년 전까지 5-7세는 같은 연령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기 다른 교육과정으로 교육받았고, 교사들은 참고할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해 여러 유아교육 월간지에서 무분별하게 제시되는 활동을 참고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또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필요로 2011년 7세를 시작으로 2012년 5세와 6세까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누리과정은 연령과 월별로 구분된 국가수준 공통교육과정으로 교사들에게 풍부한 활동안을 제공했고, 일부이지만 국가 제정을 투입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2. 누리과정 개정의 필요성

- ▶ 계획안 중심의 교육과정
- ▶ 교육과정의 획일화
- ▶ 놀이와 학습의 분리

그러나 연령별 12권, 총 36권으로 이루어진 교사용 지침서는 참고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활동으로 인식되며 계획안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안은 유아 중심, 놀이중심 이라는 유아교육의 본질과 충돌했고 학급, 기관, 지역의 특성이 생략된 채 교육과정의 획일화, 놀이와 학습의 분리라는 문제를 파생했습니다.

3. 개정누리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

- ▶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의 미흡
- ▶ 현장 적응 과정의 생략
- ▶ 장애영유아교육 및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미흡
- ▶ 교사양성 체계와의 괴리

누리과정 개정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지나치게 형식화된 교육과정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슬림화하여 지역과 단위교육기관과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

고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회복하여 놀이가 교육이고 학습이라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누리과정은 **연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았고 연구가 완료되자마자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유아교육 및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미흡 뿐 아니라, 36권의 지침서가 해설서,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 단 3권의 자료로 축소되었으나 이를 위한 **충분한 교사연수나 행·재정적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책만 던져놓고 나몰라라 한다는 원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여름 개정누리과정에 맞추어 교사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 또한 수행되었습니다. 총 24개의 전공 교과를 17개 교과로 축소하고 언어, 사회, 미술, 음악, 수학, 과학 등의 교과교육학 과목을 유아교육과정, 유아생활, 유아자연, 유아표현의 4개 교과로 통합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분과학문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통합교과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참이지만 의견수렴도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정책연구가 개정누리과정 때와 같이 바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냐는 불안 또한 여전합니다.

4.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

- ▶ 현장 의견 수렴 과정 및 현장 적용 과정 강화
- ▶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지역수준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
- ▶ 유보통합, 유아학교 체제로의 개편을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
- ▶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실현할 장기적 비전의 정책 수립

1) 현장 의견 수렴 및 현장 적용 과정 강화

유아교육정책, 특히 유아교육과정은 영유아를 중심에 두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부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 임기를 2년 앞둔 2011년 5월 2일 유아에게 국가 수준의 공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 이후, 5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3개월만에 만 5세 공통과정안이 개발되어 9월 5일 고시 후, 2012년 3월 시행되었습니다. 만 3-4세 또한 2012년 7월, 4개월 여만에 개발되어 2013년 3월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은 미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비로 사립유치원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예결산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없었다는 점은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기관에도 책임이 있으나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시작한 유치원에 공적 자본을 투입하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한 비전과 후속 정책을 세우지 못한 교육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개정누리과정 또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개월의 짧은 개발 기간을 거쳐 고시된지 6개월만에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개정된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은 당연히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 초등교육과의 연계, 교육과정 슬림화에 따른 교사역량강화 등 개정누리과정의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개선할 시간은 애초에 담보될 수 없던 셈입니다.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은 방향의 설정과 교육 내용, 운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충분한 논의와 협업을 통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소수 연구자들이야 늘 존재하겠지만, 정책연구는 소수 연구자의 신념이나 경험에 기대기 보다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조율하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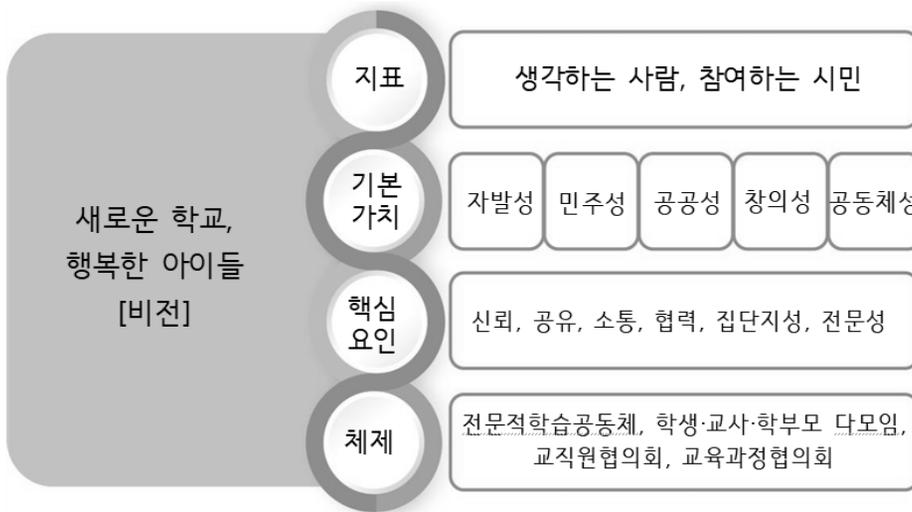
교육과정 개편과 동시에 개편과 관련한 모든 진행사항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윤은주, 2015)

2)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지역수준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

개정누리과정은 지역과 개별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며 지나치게 대강화되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과 지나치게 적은 것은 양극단으로 실상 문제의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지나치게 자세하게 계획된 교육과정이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과 상충하고 현장의 자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에 대한 대응으로 지나치게 험거운 교육과정은 교사의 자율성을 의미있게 할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전제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낳았습니다.

미래 유아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양극단을 각각 폐기하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기 보다는, 어떻게 이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만한 공인된 교육자료가 부재하던 시절의 누리과정과 지나치게 촘촘한 계획안이 초래한 교사중심 획일화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개정누리과정의 맥락을 읽고, 각 교육과정이 제정되고 개정되던 당시 유아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자 한 나름의 의도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2019년 개발된 세종시 유치원 교육과정인 아이디어 유아교육과정과 세종시 혁신유치원인 두루 유치원의 사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격, 내용, 평가가 지역수준 교육과정의 성격, 내용, 평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하나의 참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유아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개정누리과정의 총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비전, 지표, 지향을 설립하고 세종형 학력, 운영원리, 교수학적 실천 원리를 수립하여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으로 개발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8)

[그림 1] 세종교육의 비전, 지표, 기본가치의 관계

세종시 혁신유치원인 두루유치원은 아이다움 유아교육과정을 단위유치원의 상황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사학부모 다모임을 적극 활용하여 두루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아이다움 유아교육과정의 비전, 지표, 기본가치를 바탕으로 두루유치원의 철학과 지향이 설정되고 각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이러한 기본 전제를 충족하거나 위배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두루유치원 교육과정 세울때 **중요**하게 **생각** 하는것은?



(두루유치원, 2020)

[그림 2] 두루유치원 교육과정 수립 시 고려 사항

평가 또한 아이다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유치원자체평가와 유아평가를 전제로 두루유치원 교육과정 평가 시스템이 수립됩니다. 특히 아이다움 교육과정은 유치원자체평가에서 민주적 유치원 운영 체제, 자율과 협력의 생활공동체, 아이다움 교육과정, 전문적 학습공동체, 만족도를 공통지표로 삼고 있는데 두루유치원은 민주적 유치원 문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생활공동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합니다. 두루유치원은 이렇게 운영한 교육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일년에 한번 '온두루학교'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발표하고 동시에 내부의 한계를 극복할 외부 피드백을 통해 유치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합니다.

두루유치원은 훌륭한 참조이지만 국공립유치원, 혁신유치원의 사례라는 점에서 시간적, 물리적, 환경적 지원을 가장 풍족히 받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 또한 갖습니다. 아직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현시점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황에 적용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한정된 시간적, 물리적, 경제적 자원 속에서 기존의 교육과정을 폐기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지역과 교사의 자율성이 의미있는 가치로 연결되기 위한 공동체 중심의 교사 역량 강화는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는가 또한 앞으로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3) 교육부 유보통합, 유아학교 체제로의 개편을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

충분한 숙고 과정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급박하게 제정된 유아교육정책은 여러 교육 불평등을 양산합니다. 앞에서 살펴 본 여러 사례와 같이 부처 통합 없이 교육과정과 재정지원만 통합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 교육기관의 차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제정 이후 2019년까지 연례행사처럼 지속된 보육대란은 누리과정 지원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어린이집에 여러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특히 2016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초래된 어린이집 파업 대란, 2019년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비 명목 등으로 편성된 700억 가량의 예산집행을 교육청이 거부하며 발생한 소관부처 공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육결손회복,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지원한 교육회복지원금 또한 경북은 30만원, 인천은 10만원, 안산은 5만원을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 지원했으나 어린이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생들에게 유치원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급하나 이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 유아에 대한 지원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달리 적용됩니다. 유치원은 장애유아에 대한 특수교육비 및 특수교사 배치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사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장애영유아와 교사 비율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달리 적용됩니다. 유치원은 장애영유아 4명당 교사 1인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6명당 교사 1인이 배치되어 동등

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가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양성체제 차이, 국공립과 사립 유아교육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사 급여와 복지의 차이 또한 교육의 질적 차이로 이어지며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양산합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초중고와 더불어 학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립의 주요 목적이 교육보다는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교육부를 통해 지원되는 여러 교육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래 유아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로 일원화된 통합을 통해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일본이 유보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한 유보 분리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래 유아학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별 없이 영유아가 중심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실현할 장기적 비전의 정책 수립

“교육에 대한 정책 연구는 필요한 사안마다 쓰고 버리는 카드”라는 자조적 표현을 들은 적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부는 외부 전문가에 세부 정책 사안에 대한 연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장기적 계획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을 특정 연구진에 의지해 메꾸는 방식으로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김명하, 2021).

앞서 살펴본 누리과정 투입을 통한 공공성 확보 과정에서 이원화된 부처간 예산 지원 문제로 불거진 보육대란, 사립유치원에 국가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후속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초래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실상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장기적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공영형 유치원을 3년만에 폐기한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여 국공립 수준으로 교사 처우 등 유치원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여 놓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종료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장기적 정책이 부재하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CCTV 설치 의무화로만 접근하는 시도 또한 이슈 중심의 즉흥적 대처로 생각됩니다. 고질적 문제인 교사 대 유아 수 감소, 2인 담임 교사 운영제도, 유아교사양성제도 개선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접근은 여전히 논의 사항입니다.

미래 유아학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없이 교육적 관점에서의 장기적 비전이 담긴 교육정책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여러 입장 차이로 쪼개어지고 갈등하는 모습이 부각되는 방식으로 프레임이 짜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탐욕이나 집단이기심의 문제로 치환하는 구조를 통해서 장기적 비전 없는 국가의 유아교육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우리 대부분이 해 오던 데로 유아를 가장 중심에 둔 유아교육을 각자의 입장과 조율하며 함께 목소리 낼 일은 다함께, 갈등해야 할 일은 지치지 않고 논의하는 과정을 낙관과 함께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문헌〉

- 김명하(2020). 누리과정개정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유아교육과정 개발의 절차와 한계. 한국유아교육학회, 40(6), 345-367.
- 김명하(2021.10.13). 그들만의 리그, 유아교육정책. 경인일보 18면.
- 두루유치원(2020). 세종혁신자치유치원 교육과정 실천과 나눔, 2020 온두루학교. 두루유치원.
- 박창현, 이경화, 이민희(2017).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 성격에 부응하는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8). 2019학년도 아이다움교육과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아이행복세상백만인서명운동본부(2021).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교육체제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 토론집.
- 육아정책연구소(2021).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21). 제3차 KICCE 정책토론회 자료집,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 육아정책연구소.
- 윤은주(2015). 민주주의 실현으로서 핀란드 교육과정 개편이 주는 교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373-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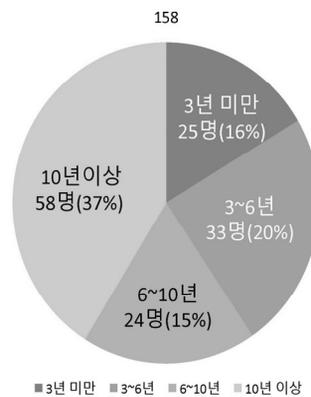
누리과정 : 현장 교사들의 의견

누리과정 : 현장 교사들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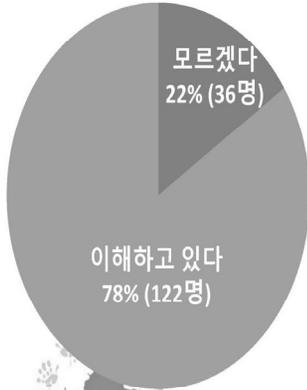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유치원 위원회 이경진

설문인원 분포



1.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철학,배경)

누리과정 철학, 배경 이해



- 3년 미만 : 5명
- 3~6년 : 9명
- 6~10년 : 8명
- 10년 이상 : 14명

■ 모르겠다
■ 이해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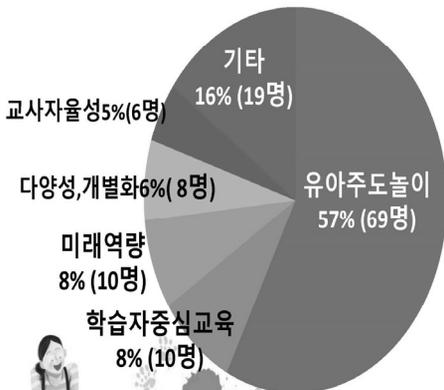


저 경력 교사보다, 고경력 교사에게서 누리과정의 도입배경을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1.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무엇이 핵심인가?)

무엇이 핵심인가?



- 놀이의 중요성 강조(주도성, 자발성)
- 학습자 중심으로의 변화
- 미래 핵심역량 교육
- 다양성 인정, 개별화교육
- 교사 자율성 강화
- 기타(국가정책, 무상교육 유보통합, 구성주의, 회복탄력성, 다른나라 따라하기등)

■ 유아주도놀이
■ 학습자중심교육
■ 미래역량
■ 다양성존중, 개별화
■ 교사자율성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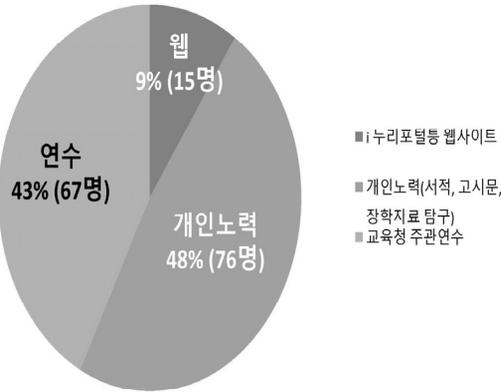


놀이의 중요성(특히 주도성과 자발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



1.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경로)

누리과정 배경 이해 경로



- 누리포털 등 웹사이트
- 개인노력(서적, 고시문, 장학자료 탐구)
- 교육청 주관 연수



교사 개인의 노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
누리과정 이해, 연구를 위한 교사 개개인의 노력이 보여짐



2. 과거 교육과정과의 비교(유아측면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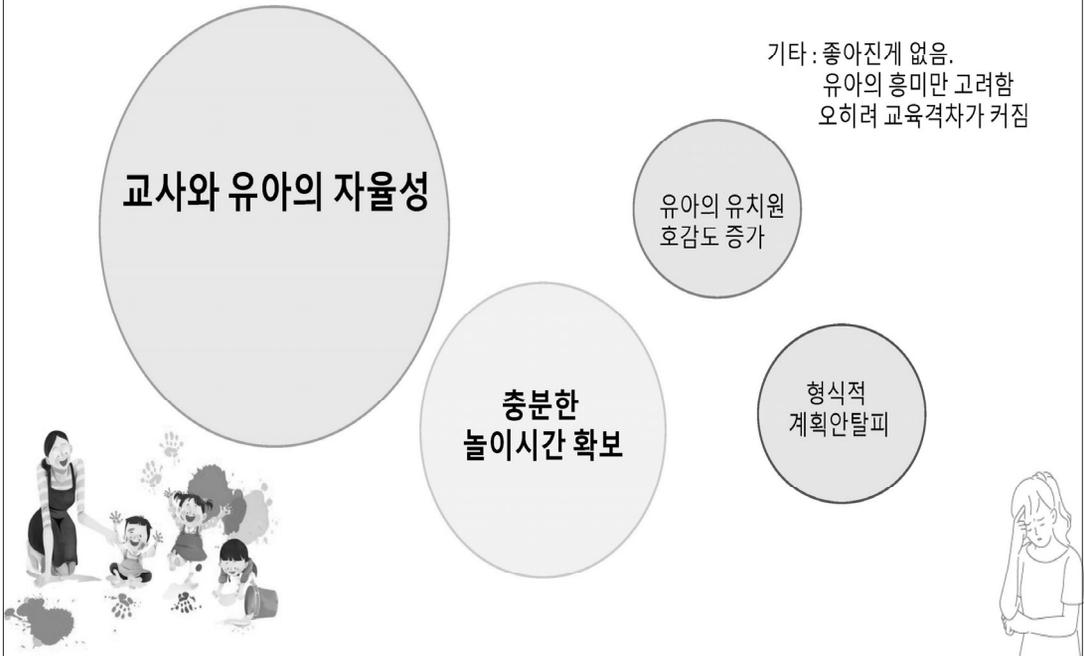
- 자발성 36%
- 변화없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25%
- 개별화 교육 20%
- 창의성 8%
- 유아간 관계증진 6%
- 기타: 자연존중, 유아가 유치원을 좋아함, 유아측면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효과적
- 기타: 오히려 부정적
(교사와 관리자 이해차이에서 오는 괴리, 놀이를 잘 하지 못하는 유아들은 학습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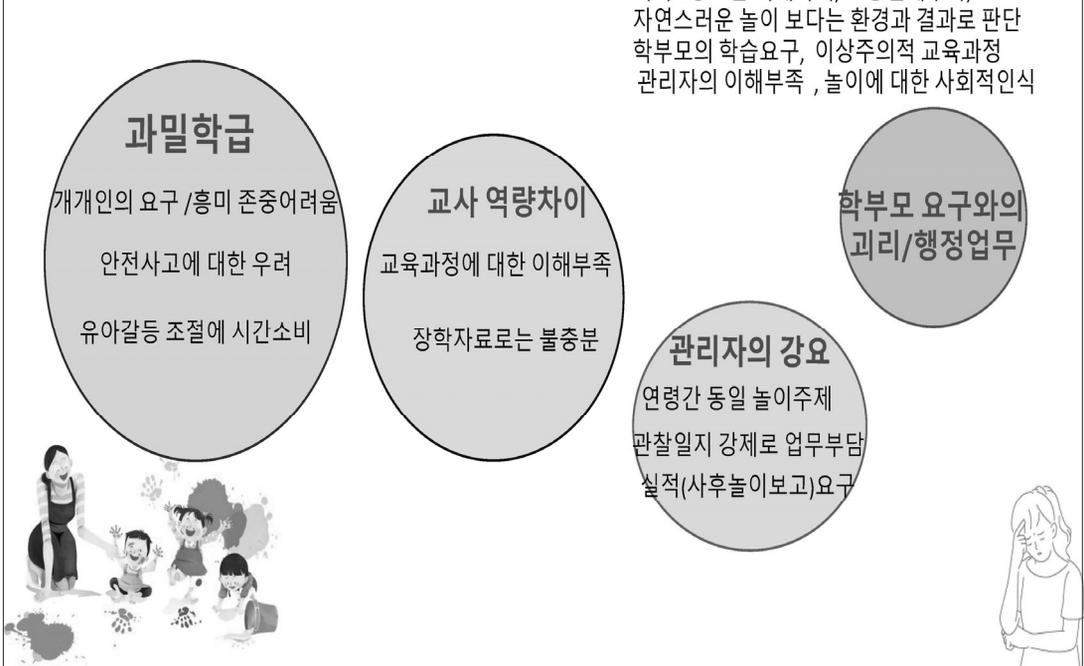
교사 개인의 노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
누리과정 이해, 연구를 위한 교사 개개인의 노력이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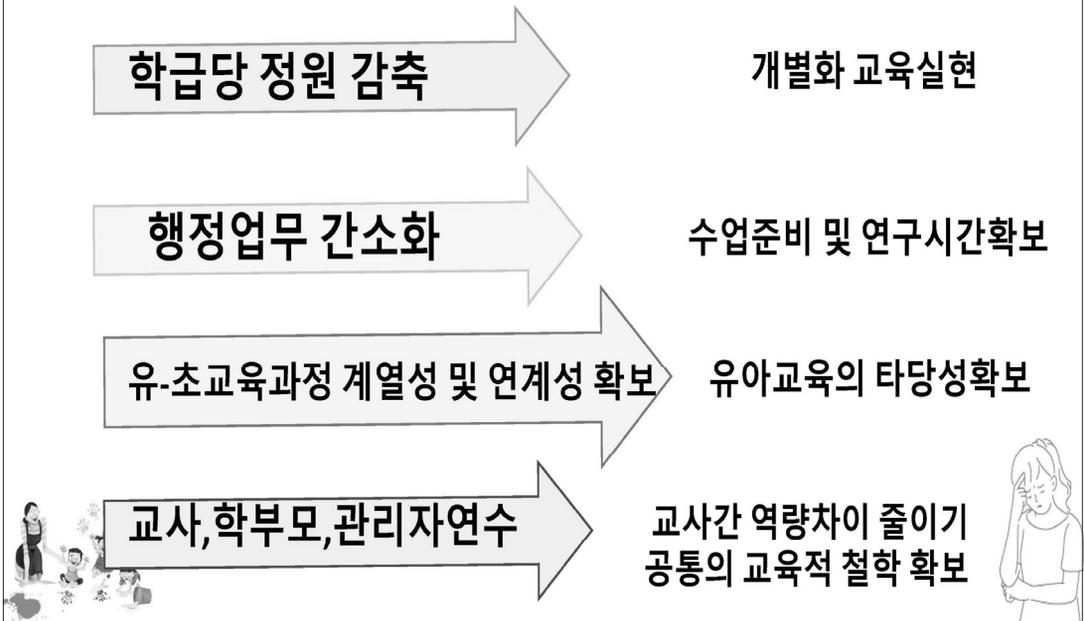
3. 과거 교육과정과의 비교(교사측면 긍정)



4.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5.현장을 위해 필요한 노력(조사토대)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3차)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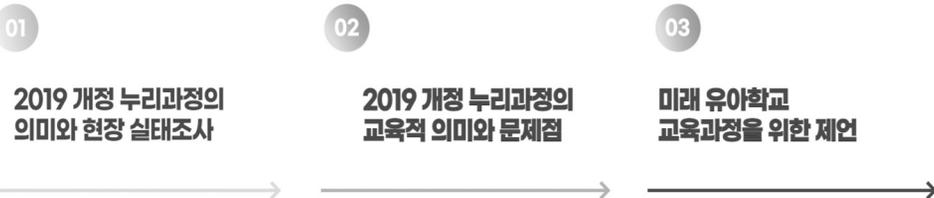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을 위한 제언

2021. 11. 18.



다함께 행복한 생애 첫 학교 교육,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목차



1.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의미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521-01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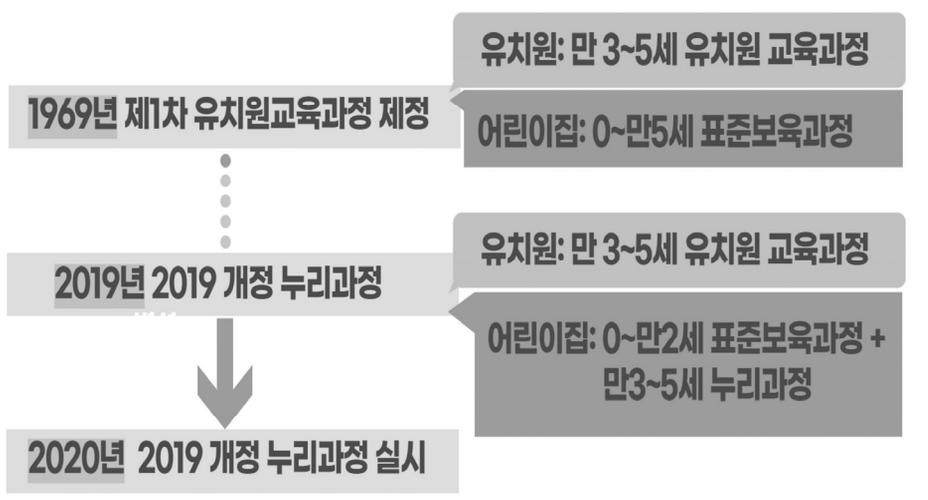
2019년 7월 24일
교육부장관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1.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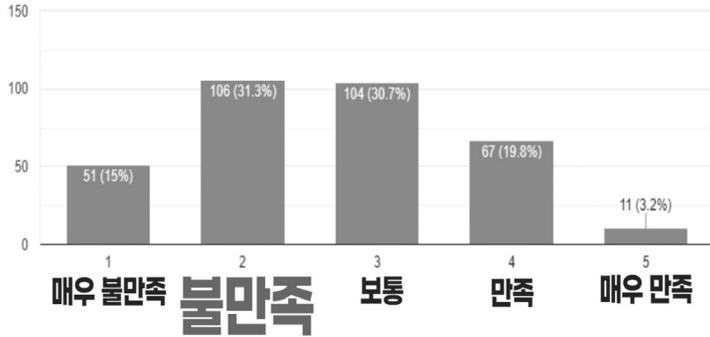


1.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태조사

2019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명칭, 국가수준교육과정으로서의 적절성 여부, 학급운영, 수업, 학부모상담, 초등연계 등)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응답 3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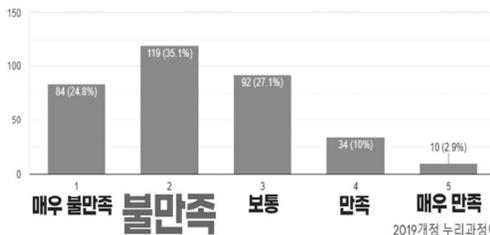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국공립 유치원 형태를 선택해주세요.
응답 339개



1.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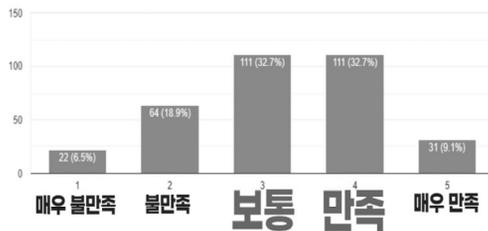
2019개정 누리과정 개정 시 현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339개



2019개정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이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에서 어느정도 교육적인 효과(5개영역 교육목표 달성)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3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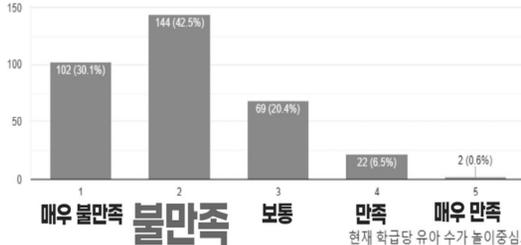


1.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태조사

현장에서 느끼는 2019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이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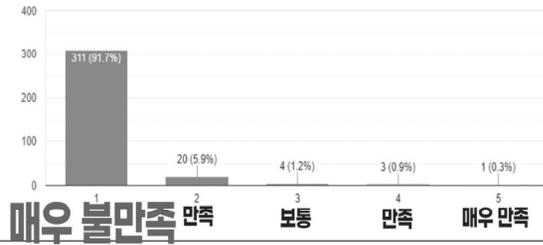


응답 339기



현재 학급당 유아 수가 놀이중심교육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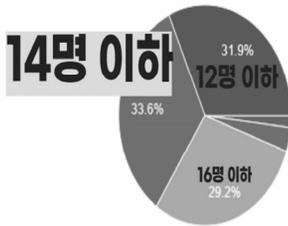
응답 339기



1.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태조사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절한 학급당 유아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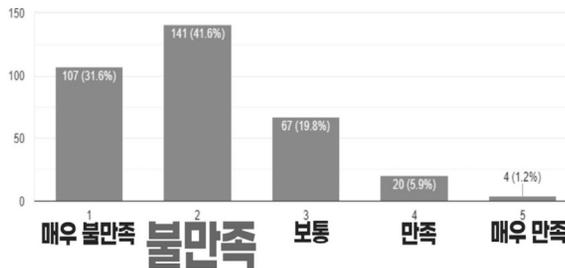
응답 339기



- 20명 이하
- 18명 이하
- 16명 이하
- 14명 이하
- 12명 이하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 평가, 학부모 교육에 대한 지침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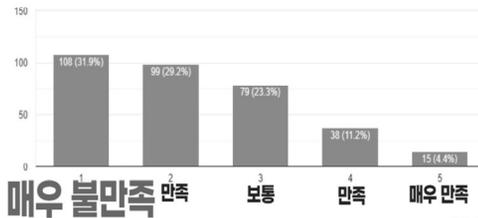
응답 339기



1.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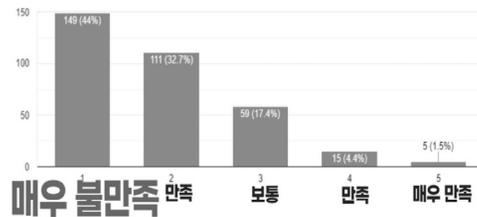
현재 근무중인 기관의 관리자들은 2019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339개



2019개정 누리과정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잘 연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339개



2.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교육적 의미

1.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유아 주도 놀이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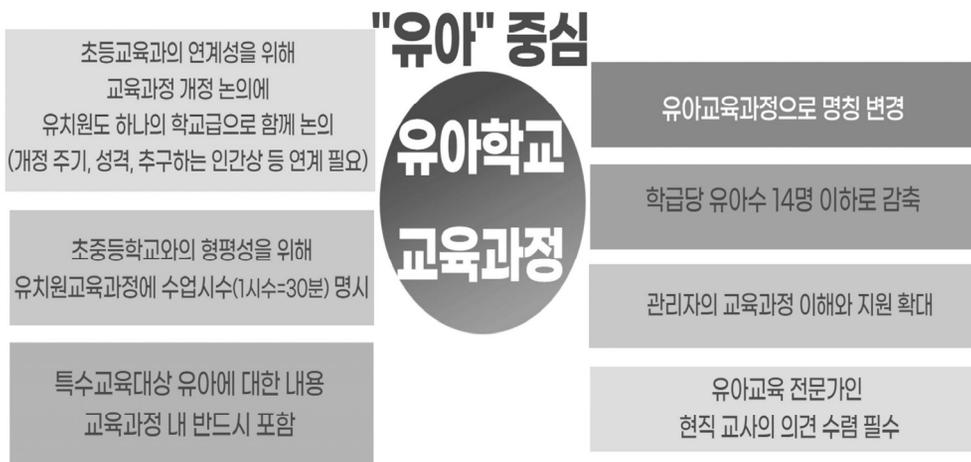
2. 교사의 자율성 강화

3. 장점이 없다. / 모르겠다. (8%)

2.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문제점

1. 누리과정 명칭 개정 필요 (정치적 의미로 인식,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부족 등)
2. 현직 교사의 의견 반영 필요 (교육의 질 저하)
3. 관리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부족 (보여주기식 놀이 결과물 강요 등)
4. 학부모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 놀이의 중요성 간과
5. 학급당 유아 수 감축 필요 (14명 적절) (과밀학급으로 인한 폭력적 환경 조성)
6. 유아평가, 학부모교육 등 지침 및 지원 부족
7.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부족 (공정한 출발점 평등 보장 저해)

3.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제언



THANK YOU

감사합니다

2021. 11. 18.



다함께 행복한 생애 첫 학교 교육,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유아교육을 위한 제언

이주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유아교육사에 영향력 있는 인물을 뽑고자 한다면 프뢰벨과 듀이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19세기 신인문주의 시대 낭만주의 관점에서 ‘상징’과 ‘놀이’를 유아교육에 접목한 프뢰벨이 19세기 유아교육의 사조를 이끈 학자라고 한다면, 20세기 산업혁명과 맞물려 과학적·객관적 실용주의 시대 프래그머티즘 관점¹⁾에서 교육을 이론과 실천의 이분법적 논리로 바라보았던 이전의 교육논리를 극복(양은주, 2008)하고 ‘상징’과 ‘놀이’를 강조한 듀이의 사상이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유아교육 사조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프뢰벨이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면, 듀이는 프뢰벨의 ‘놀이’를 자신의 교육철학 하에서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와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원격수업, AI시대의 도래, 페미니즘, 다문화와 양성평등, 기후온난화 문제와 같은 지속가능성 등 과거 유아교육의 근간을 이루던 시대 사적 사조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미래유아교육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1.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한 배경은 바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2016년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²⁾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주제로 선정되면서 부터이다. 매년 개최되는 이 포럼의 2012년도의 키워드는 「대전환」, 2013년 「유연한 역동성」, 2014년 「세계의 재편」과 같은 큰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어젠다로 진행되면서 미래 사회를 진단하고 방향을 정립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던 중 2016년 비로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구체적인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교육을 비롯한 사회 변화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디지털 혁명’은 지식의 생성·소멸주기가 매우 짧은 고도의 지식·정보화시대를 열면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공학, 생

1) 프래그머티즘은 경험과 이성, 이상과 현실을 이분법적인 논리 하에, 구분 짓고 영구불변의 초월적인 절대성을 지향한 전통 철학을 변혁하려는 사상운동이다.

2) 오피니언 리더: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 태도, 의견 행동 따위에 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Daum 한국어 사전)

명공학 등 지능정보 기술과 융합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시스템이 생산을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게 된다. 이로써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인류문명의 근본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이다.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분화의 양태’에서 ‘융합의 양태’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융합혁명’의 도래는 우리 삶 전반을 새롭게 기획하도록 요구하고, 지식의 성격과 함께 교육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화된 교과 중심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역량 중심으로, 표준화된 획일적 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객관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변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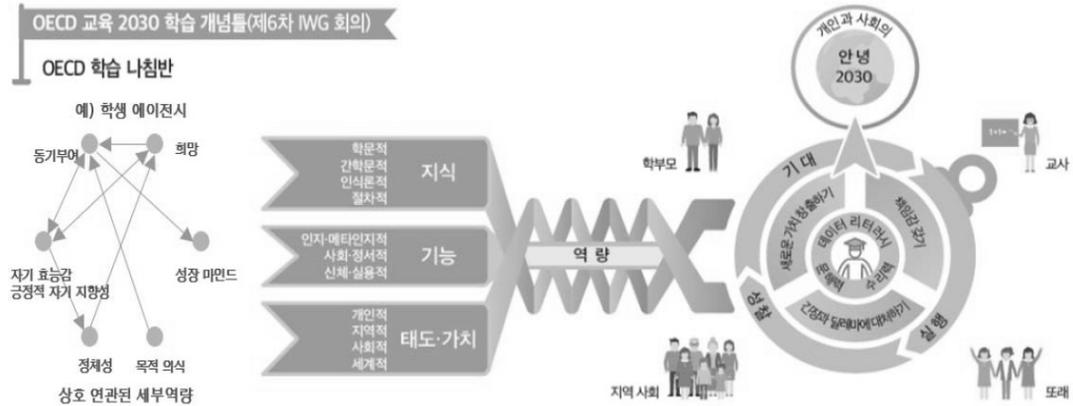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인 ‘디지털 융합’은 초 지능화(Hyper-Intelligent)와 초 연결성(Hyper-Connected)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통합되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물간의 연결이 현실과 가상의 세계까지 확대되어, 모든 부분에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기르기 위해서는 특히 유아교육에서 바람직한 인재상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을 고려한 부분적 변화나 개혁이 아닌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2. 핵심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현재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에서는 ‘지식’이 아닌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ECD에서는 20년 전 Deseco 프로젝트라 불렀던 역량을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2030년을 바라보며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도구의 활용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그리고 ‘자율적 행동능력’)으로 대폭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최수진, 이재덕, 김은영, 김혜진, 백남진, 김정민, 2017). 핵심역량의 의미를 “개인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뿐 아니라 행복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삶의 여러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역량”이라 정의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재교육으로서 핵심역량(core competency) 중심교육을 강조하였다.

OECD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학습자를 에이전시(주체, 주도, 기획자)로 중심에 두고, 지식, 기능, 태도·가치가 결합된 것으로 역량을 규정하고, 역량을 통해 학습자가 발휘할 것들을 설계하고 있다. OECD가 제시한 학습 개념들에 나타난 역량은 다음과 같다(OECD, 2017).

〈그림 1〉 OECD 학습 개념들에 나타난 역량



※ 그림 인용: 교육부 공식 블로그(2018)
 ※ 원출처: OECD(2017: 36; 최수진 등, 2017, p.62에서 재인용)

이처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와 학교의 기능이 재구조화되고 교육환경 또한 미래교육을 위해 함께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조난심, 2017; 정제영, 2017; 성태제, 2017; 이선영, 2017).

3.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과 우리의 실제

미래 학교교육의 상을 제시한 것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OECD 산하 교육연구와 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이하 CERI)에서 2000년에 20년 후의 학교교육의 미래상을 여섯 가지로 제시한 것이다(OECD, 2001). 시나리오는 학교의 구조 변화의 정도를 현 체제 유지, 학교 재편, 탈학교 등 셋으로 나누어 각기 가능한 시나리오 두 가지씩을 구상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들은 학교 체제의 유지와 변화라는 비교적 단순한 기준으로 나누고, 변화할 경우 재편의 수준인지 학교라는 제도가 해체되는 수준인지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각 시나리오가 특징적으로 기술되고 있어 독자가 바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류방란, 김경애, 이상은, 한효정, 이윤미, 이종태, 최항섭, 이지미, 2018).

〈표 1〉 미래의 학교체제

현 체제 유지 (status quo extrapolated)	학교 재편 (re-schooling)	탈학교 (de-schooling)
견고한 관료적인 학교 체제	3. 사회 핵심 센터로서의 학교	5.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
2. 시장 원리 적용 모델 확대	4. 초점화된 학습 조직으로서의 학교	6. 교사의 탈출, 학교 붕괴

※ 출처: OECD(2001: 79)

2004년 아시아 몇 개국이 위 시나리오를 가지고 교육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가(교육부 관리, 교육청 관리, 대학교수 및 연구원, 학교장, 교직 및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에게 델파이³⁾를 실시하여 해당국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전망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시장 모델, 관료제, 학습조직, 사회센터,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류방란, 2004). CERI가 전망한 2020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체제를 위 시나리오와 견주어보면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주된 특징은 시나리오 1(견고한 관료적인 학교 체제)이 주된 양상을 보이고(류방란, 김경애, 이상은, 한효정, 이윤미, 이종태, 최항섭, 이지미, 2018) 자생적·자발적으로 사학기관이 형성되면서 시나리오 2(시장 원리 적용 확대)의 형태가 나타나며, 현재 1과 2의 혼재된 복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나리오 3(사회 핵심 센터)과 4(초점화된 학습 조직)의 요소가 아주 제한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은 시나리오 1과 같이 관료적인 학교 체제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류방란, 김경애, 이상은, 한효정, 이윤미, 이종태, 최항섭, 이지미, 2018). 시나리오 2와 같이 하향식 획일적 학교체제를 바꾸기 위해 시장경제의 원리가 교육개혁의 이름하에 여러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견고한 관료적 학교 체제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중시하는 자율화, 다양화, 탈규제는 교육의 현안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절대 선인 양 기존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사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4. 미래 유아교육을 위한 제언

교육수요자인 유아-학부모의 요구와 현 교육정책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를 살펴보자.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서로의 견해는 우선 논의에서 제외하고, 지난 2021년 9월 9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민 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살펴보면 약 10만 명의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그로 인한 교육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유아교육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학생의 개별성·다양성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며,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과 수준을 적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사립유치원에서 지금껏 지속적으로 요구한 교육수요자인 유아(유아교육에서는 학부모 포함)의 교육선택권과 그 맥을 같이한다. 권고안 중 특히 많은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동기’를 구현하고 유아-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커리큘럼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이 존재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적폐이고 국·공립유치원만이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견고한 관료적 학교체제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무한 경쟁의 글로벌 사회에 창의·융합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3) 델파이: 설문 조사에 의한 기술 예측 방법으로써 과학 기술의 발전이나 신제품 개발 따위가 미래의 산업 구조나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조사 방법(Daum 한국어 사전)

둘째, 학생 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에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여 교육과정의 분권화, 지역화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 역시 사립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치열한 자기반성과 경쟁 없이는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견고한 관료적 체제 하에서의 학생 주도성 실현은 실현가능한 상상이 아니라 이상향이자 망상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바우처 제도의 확립으로 교육수요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교육기관은 스스로 도태되고 선택받기 위한 치열한 선의의 경쟁 속에서 유아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선택을 받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대사적 요구이자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다. 경쟁과 혁신, 변화 없이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국·공립유치원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10년의 사립유치원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해 왔으나 견고한 관료적 체제 하에 강제 사멸되고 있다. 학부모의 선택받지 못해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정반대인 경쟁과 혁신을 거부한 현 교육당국에 의해 고사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실질적 자율권은 고사하고 교육수요자인 유아-학부모의 요구가 무시된 채 분권과 지역화가 아닌 중앙집권적 제왕적 독점체제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유아교육계의 모습이다.

셋째,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를 유아교육에 대입하여 보면 교육청은 개별학교의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공동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전담하고, 순회교사 활성화, 강사 인력풀 관리 등을 지원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학교 밖 학습까지도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현재 유아교육 현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권고안이라 하겠다.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흥미와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으나, 견고한 관료적 체제 하의 교육당국은 교육수요자의 요구마저 저버리고 특성화 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에 영어교육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무한경쟁 글로벌한 시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학부모의 빗발치는 항의로 교육부에서는 한걸음 물러나 2018학년도까지 1년 유예로 받을 뻔 상태이며 2021년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이다. 또한, 그와 더불어 그동안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으로써 유치원의 고유 재량이었던 특성화 프로그램마저 ‘유아 1인당 - 1일·1과목·1시간 이내·방과후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제한’하면서 강제하고 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2020학년도에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단계적 축소와 미운영을 강제하기 위해 주당 1~2개 이내로 체육, 음악 등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제한적으로 최소한 운영을 강제적 도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지원공모사업에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배제하겠다는 공문 또한 시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육의 주체가 사라진 채 교육을 수치화 계량화해서 탁상공론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견고한 관료적 체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 아이러니 하게도 ‘작은 학교 살리기’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각 학교들을 살리는 비책으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특색 프로그램의 운영을 표방하고 있다. 참 이율배반적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우기는 교육당국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넷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느린 학습자(경제선 지능), 언어 지연, 난독증, 난산증, 다문화 학생, 저소득층 학생,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지원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과 범교과 학습 운영 유연화 등을 권고하였다. 이 역시 사립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사실이다. 국가 권력의 비대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으로 '국·공립유치원이 더 좋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채 교육기관으로써 최정점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옳은 것인가? 사립유치원과 달리 학부모 자부담이 없이 무상교육이 실현된 국·공립유치원에 당첨되면 로또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이 또한 학부모의 외면 속에 실패했다(조선일보 2021.08.15자 신문기사 참조 - 국공립유치원 미스터리... 정원비율이 39%라는데, 취원율은 왜 30%?).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는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다. 그렇다고 유아교육이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다. 국·공립유치원만을 통한 공교육의 확대만이 교육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밀어붙이는 전체주의적 국가관에서 기인된 잘못된 발상이다. 자사고의 강제 폐지 이후 대법원에서 잇따른 패소, 정부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속의 과정 등 국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정책 강행으로 우리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경험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 이를 주도한 어느 정부당국과 정책입안자 중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 이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교육당국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BS(교육혁명 미네르바 스쿨)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영상의 내용을 글로 읽어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유·초·중·고·대학교 중 어떤 교육기관의 모습이 상상되는지 매칭해 보자. 그리고 견고한 관료적 체제 속에서 국가의 로드맵에 따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교육 정책인지? 아니면 각 기관의 역량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력 있고 미래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쪽으로 교육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껏 함께한 참석자들께서 판단해 보시길 바란다.

미네르바 스쿨은 완전 능동적 학습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학생이 수업에 관여하게 합니다. 토론 세미나 방식을 기본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 세미나 외에도 경험적 학습이 핵심 학습으로 학생들은 각 도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고, 작업 세션에 참석하고, 시민 단체와 협력하고, 저명한 문화 인물과 교류합니다. 학생 경험 및 학업 팀이 개발 한 이 프로그램은 학업 자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용적인 기술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감, 탄력성 및 책임과 같은 중요한 성격 특성을 배양하도록 경험적 학습을 설계하고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 <중략> ---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 살펴본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지식 기반 학습보다는 실제 경험으로 구성된 학습, 온라인 기반 학습,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실제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학습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역량 중심의 학습, 구체적인 프로젝트 학습, 블렌디드⁴⁾ 학습 등의 요소를 미네르바에서는 매우 수준 높게 구현해내고 있으며, 최근 많이 강조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4)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혼합형 학습으로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대개 면대면 수업(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결합한 수업 형태로 두 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학습방식을 말한다.

참고문헌

- 류방란, 김경애, 이상은, 한효정, 이윤미, 이종태, 최항섭, 이지미(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한국교육개발원.
- 성태제(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과 교육의 방향 및 제언. 교육학연구, 55(2), 1-21.
- 양은주(2008).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에 기초한 교육철학의 성격. 교육철학, 43(-), 31-63.
- 이선영(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심리학. 한국교육학연구, 23(1), 231-260.
- 정제영(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제도 개선 방안: 개인별 학습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4(3), 53-72.
- 조난심(2017).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교육비평, 38, 330-347.
- 최수진, 이재덕, 김은영, 김혜진, 백남진, 김정민(2017). OECD 교육2030 참여 연구: 역량 개념틀 타당성 분석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 OECD (2001). What School for the Future?.
- OECD (2017).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rogress report of the OECD Learning Framework 2030. (제 6차 비공식 작업반 회의자료: EDU/EDPC(2017)/25).

모든 유아를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방향 제안

김현숙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I. 들어가며

기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보완의 필요성 및 과도한 연령별 교육내용과 현장 적용의 획일성 등이 문제제기되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주도의 놀이실행-평가-계획(경험한 내용)’의 단계로 전개되는 실행 중심의 교육과정이다(임부연, 2019).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국가적인 기본지침은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총론은 「2019 개정 누리과정」 총론의 내용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별책2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근간으로 편성·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최근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주목하고 있는 ‘일반교육과정으로의 접근(access to the general curriculum)’이며, 장애의 구분 없이 모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발달에 적합한 실제(DAP, Bredekamp, 1987; Copple & Bredekamp, 2009)’의 철학적 배경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다(김현숙, 이병인, 2015). 즉, 장애가 없는 유아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환경구성 등이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도 차별 없이 경험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유아를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으로의 도약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어려움을 밝히고자 한다.

III.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을 꿈꾸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다. 2021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수혜를 받고 있는 유아는 총 7,197명으로 이중 927명의 유아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에 배치되었고, 유치원 특수학급에 4,444명이, 유치원 일반학급에 1,826명이 배치되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교육부, 2021). 이는 2011년 3,367명과 비교했을 때 1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교육부 2011). 유치원과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수혜받는 대상자의 수는 해마다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유아교육은 지속적으로 ‘놀이’를 통한 유아들의 배움을 추구해왔다. 누리과정은 이를 바탕으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김은영, 2019). 교사 계획보다는 유아로부터 발견되는 놀이를 강조하고, 유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놀이에서 유아의 주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오지연, 노진아, 2020). 즉,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중심 사상은 유아의 능동적 학습능력을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반면 전통적으로 행동주의에 기초한 유아특수교육에서는 놀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놀이가 일반유아의 놀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자기 주도적인 놀이 실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원계선, 2020).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일반유아에 비해 놀잇감을 덜 탐색하고, 놀이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으며, 다른 또래의 시도에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놀이는 대부분 혼자 놀이인데다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해도 그 지속시간이 짧다.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놀이 특징 때문에 그동안 이들의 놀이에 대한 가치가 간과되고, 매우 구조적·지시적인 교육이 실행되었고, 행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교사의 개입을 우선시 하였으나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이들의 놀이에 대한 가치를 입증하기 시작하였다. 놀이 상황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인지발달과 운동기능 및 언어능력의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놀이를 통해 부적응행동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며 학습과 발달의 중요한 매개체로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20).

유치원의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놀이 가치를 인정하며 또래 수준과 같은 개념으로 놀이를 할 수 없거나, 놀이대상자로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지라도 이들이 가진 유능성과 고유함을 발견하며 발달과 학습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갖도록 놀이를 지원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20). 그러나, 특수학급의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이 다양하고, 혼합연령으로 구성되기에 유치원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의 광범위한 교육적 요구를 따라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특수교육의 보상적 측면을 기대하는 학부모들에게 놀이를 통한 배움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은 유치원 특수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은 교육과정과 개별화교육계획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 유치원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유아가 가진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에 따라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실행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사에게 중요한 업무이며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통합교육,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기에 모든 유치원 특수교사들은 이를 전문성 있게 실행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가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실행된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놀이 흐름에 따라 적합한 교육지원을 판단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교육부, 2019). 이에 통합학급의 일과가 예측가능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내실 있는 개별화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특수교사가 변화되는 일과에 따라 능동적이고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해야 한다(마유림, 이병인, 김현숙, 2021). 수많은 행사와 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유치원 현장에서 매주 혹은 매일 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사전협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다.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이 1:1로 매칭되어 모든 일과를 공유하는 완전

통합 상황이라면 유치원 특수교사 역시 비장애유아들의 놀이 흐름을 파악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일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수학급은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유치원 특수교사는 매일 다른 연령의 통합학급을 지원하므로 일과를 예측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특히, 유치원 특수교사는 최근 4-5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5년 전인 2017년 전국에 1,320명이었던(교육부, 2017) 유치원 특수교사는 2021년 현재 총 2,050명이다. 35%의 교사가 경력 5년 미만의 교사인 셈이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은 경력교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에 초임 유치원 특수교사가 예측되지 않는 일과에 참여하며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아이디어로 교육과정과 개별화교육을 연계하는 것은 더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은 5개 영역의 내용은 총 59개 내용으로 간략화하고 이를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명시하였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학습자 중심의 배움의 실현에서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배움의 실현에서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교사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최근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이 1:1로 인가된 통합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로 곤란한 일이 있었다. 이 유치원은 특수학급에 4명의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배치되고, 완전통합을 실행하는 통합유치원이기에 통합학급 정원 내에 특수교육대상유아가 포함되어 있다. 즉 5세반 15명의 유아 중 4명이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인 것이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배치기관은 특수학급 뿐 아니라 일반학급도 가능하므로 일반학급 배치로 4명의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추가 배치된 것이다. 정리해 보면 5세반 15명의 유아 중 4명은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 4명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 그리고 7명이 비장애 유아로 구성된 셈이다. 이는 학급 정원이 6명인 초·중등의 기준보다 많은 것으로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없는 학급 구성이다. 행정적으로는 특수학급 배치, 일반학급 배치이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 완전통합교육이라는 상황은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에 영향력 있는 근거가 아니다. 한편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기대며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하나, 다른 한쪽은 교사가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Ⅲ. 나가며

유치원의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정의 접근이라는 최신 특수교육의 흐름을 따르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개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수정·적용하며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철학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장애유형과 연령의 학급 구성에 따른 광범위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적 요구, 예측 가능하지 않은 통합학급의 일과 그리고 미흡한 교육여

건 등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그 나라 교육의 바로미터라고 한다. 모든 아이가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현장의 상황이 고려된 지침과 법적,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교육부 (2011). 특수교육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_____ (2017).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_____ (2019). 놀이실행자료. 세종: 교육부.

_____ (2021).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0). 놀이 이해 자료.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김현숙, 이병인 (2015).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계획, 실행, 평가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고찰. 유아특수교육연구, 15(3), 109-126.

마유림, 이병인, 김현숙, (2021). 공립유치원 초임 유아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IEP) 작성 및 실행에 대한 질적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21(3), 1-26.

오지연, 노진아 (2020).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20(3), 83-112.

원계선 (2020). 개정 누리과정과 통합된 장애유아의 놀이 지원에 관한 연구. 영유아교육지원연구, 5(1), 1-26.

임부연 (2019). 놀이하며 배우는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11-25.

공동육아교육과정을 통해서 본 개정누리과정

장복순 | 재미난어린이집 원장

1. 개정누리과정을 계기로 공동육아교육과정을 들여다보다.

공동육아는 2019년 개정누리과정을 계기로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졌다. 2012년 누리과정이 나왔을 때도 그랬다.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던 것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획일화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공동육아가 지향하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를 중심으로 한 ‘공동육아 누리과정 연구모임’에서 누리과정에 대응하는 공동육아교육과정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0년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 연구팀에서는 개정누리과정에 비추어 공동육아교육과정을 재정리하였다.¹⁾ 개정된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방향이 공동육아가 그동안 추구해온 방향과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두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공동육아교육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더불어 개정 누리과정과 공동육아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각 어린이집에서 새롭게 살아낼 ‘만들면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였던 부분도 있었다.

연구 내용은 공동육아교육과정과 개정누리과정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현재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교육 실천을 충분히 들여다보는 데 더 집중하였다. 두 교육과정을 비교한 부분은 <부록>을 통해 따로 정리해주었다. 다만 비교한 내용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공식입장은 아니고 오직 연구팀의 관점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후 여기에 답을 내용도 연구팀이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2. 공동육아교육과정과 개정누리과정의 차이점을 정리하다.

이번에 개정된 누리과정은 공동육아에서 지향하는 방향과 공통점이 있다. 두 교육과정 모두 ‘아이²⁾들을 존중하며 그 흥미와 욕구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1)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 연구팀, 「2020 공동육아교육과정 들여다보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 아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보통 유아교육에서는 ‘유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 연구팀에서는 같은 뜻을 가진 두 단어 중에 ‘아이’를 사용하기를 선택하였다. 이 글에서도 ‘아이’를 사용하려고 한다.

고 보고 있다. 반면 차이점도 있다. 이 글에서는 공동육아교육과정과 개정누리과정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정리해보려고 한다. 두 교육과정의 차이점으로 정리되는 내용은 공동육아 시선에서 정리되다보니 개정누리과정보다 공동육아교육과정이 한 발 더 나아가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단순 비교보다는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방향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두면 좋겠다.

먼저 아동관에 차이가 있다. 아이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교육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아이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누리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한 반면, 공동육아에서는 '어린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누리과정이 앞으로 이렇게 키워져야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공동육아는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가 이미 '독립적이고 관계적인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아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충분히 수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어른과 아이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 두 과정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라는 점은 같지만, 누리과정은 교사와 유아의 관계에 초점을 둔 반면, 공동육아는 교사와 더불어 부모, 지역사회의 어른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어른'과 아이의 관계를 말하며 아이가 맺는 관계를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개정누리과정이 교육을 삶과 일정 정도 분리된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공동육아교육과정은 삶과 연결된 '문화의 총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놀이에 대한 이해에서도 차이가 엿보인다. 두 과정 모두 아이들이 놀이가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아이들에게 배움과 놀이는 분리될 수 없는 일상이라는 것을 개정누리과정이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공동육아가 놀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더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놀이문화', '놀이공동체'이다. 공동육아에서는 아이들의 삶의 범위를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와 교사를 넘어 친구의 가족, 교사의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만나는 지점까지 넓혀놓았고, 이에 따라 아이들의 놀이의 범위 역시 넓혀놓았다. 아이들은 경계를 넘나들며 교사, 부모, 지역의 어른들과 함께 놀면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이다.

네 번째로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공동육아교육과정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호기심과 탐구심에 더해 모험심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안전에 대해 사회 전체가 민감해지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위험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충분한 지원을 바탕으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이들이 자율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이들이 가져야 할 감수성에 생태적 감수성을 더한 것도 차이점이다.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관계 안에 자연(생태)이 포함되기 때문이며, 이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지향을 담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교육과정의 표현과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동체의 일원

을 길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5개의 흥미영역과 연계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교수학습에서도 차이가 느껴진다. 두 과정 모두 아이들이 흥미와 욕구에 따라 놀며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공동육아에서는 학습이란 서로 연관되어 통합적으로 경험되고 습득된다는 점과 아이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할 때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통합과 참여의 원칙은 더불어 사는 삶이 곧 교육이라는 공동육아의 핵심 가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교육내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내용을 범주화해놓은 데서 차이를 엿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다. 누리과정은 유아가 경험해야 하는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5개 영역을 통합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간략화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육아는 통합중심으로 살고 있었고,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와 속도에 따라 다른 내용과 과정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간략화하여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정누리과정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미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개정누리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배움을 실현하는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상황과 맥락에 맞게 판단하고 지원하도록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에게 자율성이 담보되면서 그만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공동육아에서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역할들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 정리된 교사 역할들은 아이들이 흥미와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려면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오랜 시간 고민하며 나온 내용들이다.

교사의 여러 역할 중에 관찰기록자의 역할이 있다. 누리과정이 개정되면서 공동육아 현장의 교사들에게 관찰기록자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것 같다. 교사들에게 부여된 자율권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우리의 실천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공동육아 교사들은 일찍부터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기록을 통해 교육실행을 평가하고, 계획은 적절했는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되었는지, 아이들 사이의 쟁점은 무엇인지, 지금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사가 지원해줄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즉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그리고 교사 자신의 성장을 위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같이 보기'의 역할은 공동육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교사 한 명이 한 반을 맡아 전적으로 책임지며 교육하는 다른 기관과 다르게 공동육아는 '함께 키우기'의 실현을 교사회 단위에서도 실현하고 있다. 내 방 네 방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고 '같이' 돌보는 일을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다. 공동육아교육과정이 강조하는 공동체의 문화가 반영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돕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방을 넘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두 교육과정의 차이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정누리과정이 요구하는 국가수준의 교육 내용이 이미 공동육아 안에서 실현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동육아교육과정이 가정과 지역으로 더 크게 열려 있고, 개인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 문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대안적 유아교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교육과정을 충실히 더 잘 실현하면서 아이, 부모, 지역사회 이웃들이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삶을 구체화시켜나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개정누리과정의 실행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해보다.

지금까지는 공동육아교육과정에 비추어 이론적으로 개정누리과정이 품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봤다면 이후에는 개정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지금 공동육아교육과정이 개정누리과정 내용들을 반영하여 실천해낼 수 있기까지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고민해오던 내용이기도 하다.

공동육아는 개정된 누리과정에서 주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실험과 실천의 경험을 하였다. 그 경험을 통해 아이가 잘 놀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적 환경을 포함한 모든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동육아교육과정을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펼쳐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채우고 또 채워가기를 반복하였다. 즉 아이와 놀이를 중심에 둔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 속에서 또 그 속에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낸 것이다. 어쩌면 공동육아 교육과정은 교육의 현장에 있던 어른과 아이가 함께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공동육아도 놀이가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놀이를 중심에 둔 국가수준교육과정을 접한 일반 현장의 교사들이 겪을 혼란과 어려움이 짐작된다. 공동육아가 그랬던 것처럼 놀이를 중심에 둔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와 놀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이와 놀이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이 아이, 놀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믿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국가수준에서 놀이를 강조하고, 교사 개인이 관점을 바로 세운다고 놀이중심교육과정이 바로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이를 둘러싼 어른이라고 하면 교사 한 명을 의미하는 것도, 교사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아이가 기관에서 만나는 어른은 담임교사 한 명이 아니다. 아이가 만나는 여러 교사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 아이가 속한 곳의 환경은 한 명의 교사로 인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교사들 사이의 협력 관계가 아이들 놀이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협력적 관계는 교사들 사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교사와 부모 사이에도 필요하다. 협력적 관계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어야 한다. 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믿어주지 않는다면 국가 수준에서 놀이를 강조해도, 교사 수준에서 놀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사들이 협력하여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놀이중심교육과정을 펼쳐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현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다. 현장의 노력만으로 실현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아이들의 놀이가 잘 실현되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돌봐야 하는 아이들 수가 많다면 아이들마다 개별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줄 수 없고, 개별성과 자율성이 바탕이 되어 진행되는 국가수준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토양 즉 문화이다. 앞서 이야기한 관점, 협력적 관계 모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화를 이루는 요소들이다. 아이를 둘러싼 문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잘 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바깥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바깥으로 나가 자연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노는 친구들의 범위를 같은 연령이 아닌 다양한 연령으로 넓혀주어야 하고, 아이의 자유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현장마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조건과 토양이 만들어져야 놀이중심교육과정이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아이들 미래 세상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 코로나상황을 보며 공동육아가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에서 이야기한 아이를 둘러싼 토양, 문화와 관련한 것일 수도 있겠다.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을 생각하며 생태 특히 기후에 대한 관심을 교육과정 실행에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의 범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 확장하여 아이들과 어떻게 생태적으로 지구와 연대하며 놀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개정누리과정이 잘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았다. 이야기했듯이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른들로 하여금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실천하기 위해 도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개정누리과정을 통해 놀이와 놀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보고, 환경을 잘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을 통해 현장에서 저마다 고유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누리과정 실행을 위해 병행되어야 할 지점과 누리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점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래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이지희 | 후암어린이집 교사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누리 주임교사를 맡고 있는 이지희입니다.

먼저 미래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을 논의에 교사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여러분들과 연구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국가 공통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로서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현안과 개선방안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1.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후 유치원 교사로 7년, 어린이집 교사로 9년을 근무하며 총 16년째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요즘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준비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놀이학교 등 영유아를 보육·교육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원아모집을 하는 시기입니다. 원아모집을 위해 대기아동수를 보곤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는데, 매년 조금씩 줄어간다는 것은 느꼈지만 이제는 반 구성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되는 정도로 아이들의 수가 적어졌습니다. 이는 비단 저희 어린이집만의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어린이집과 함께 법인단체,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모만족도와 신뢰를 기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그동안 보육정원 확보가 가능하였고,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자부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 가장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현장에서는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보육 대상 아동의 감소는 보육교직원의 고용불안정으로 연결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형태의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는 모두 나라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중 월지급액을 일부 비율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장은 80%, 영아

반 교사 80%, 유아반 즉 누리과정 교사는 30%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나마도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반별 현원이 일정기준 이상 되어야 지원됩니다. 누리과정 3세반은 15명 정원에 8명 이상, 4세 이상반은 20명 정원에 11명이상이 되어야 담임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모두 영유아 보육료를 기반으로 한 인건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유아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30% 지원을 받기 위한 현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원 운영비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보육·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보육료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며 운영에 어려움이 크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졸업 후 현장에 나왔던 동기 중 지금 교사로 남아있는 친구들은 몇 명 되지 않고, 특히 누리과정 반을 맡고 있는 친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호봉이 높아지면서 운영비가 부족한 어린이집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현장을 떠나거나 인건비 지원율이 높은 영아반을 담당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줄어드는 아이들을 보며 괜히 어린이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 낮은 호봉의 후배들에게 누리과정 반을 맡기고 영아반을 해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누리과정 반에 제일 적합한 교사가 맡는 것이라고 다른 걱정말고 교육활동에만 최선을 다하라고 지지해 주시는 원장님이 계셔서 저와 잘 맞는 누리과정 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 속 한켠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어린이집이 버틸 수 있을지 제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습니다.

얼마 전 본 연속토론회에서 유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해 논의한 토론을 보았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적정인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저 역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경험하였기에 아동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육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문제보다 보육할 아이가 없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운영비 지원 구조를 바꿔 지금 있는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질 높은 보육·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부모들에게 아이를 낳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육교직원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질 높은 보육·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의 보육료는 순전히 그들이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에 대한 새로운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개정 누리과정에 맞춰 놀이중심 컨설팅이 필요 합니다.

보육교사에게 평가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평가제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가지고 오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제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평가에 참여하는 횟수에 따라 다른 평가가 진행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평가제는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에 맞춰 재평가 받도록 되어있는데, 재평가에 대한 지표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신규평가와 동일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재평가를 위한 준비 역시 어린이집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여러 번의 평가를 받고, 우수한 등급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통의 지표보다는 개별 어린이집에 맞는 조력을 통해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평가로 바뀌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보육의 질을 충분히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기관이라면 개별 환경에 따른 평가가 진행된다면 각각 필요한 부분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평가의 본래의 목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누리과정 평가 컨설팅이 더욱더 전문화 되어야 합니다. 평가 컨설팅은 영유아와 교사 간의 보육활동과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원의 상황에 맞춘 세밀한 컨설팅이 필요하지만, 실제 컨설팅에서는 평가제의 기준에 적용된 준거를 활용하여 이미 정해진 내용을 전달하는 식의 컨설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완적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 스스로 우리 반의 놀이에 맞게 컨설팅의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여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된다면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더욱 더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휴원과 긴급보육의 연속이었으며 보육교직원들의 코는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고초를 겪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 활동과 놀이꾸러미 제공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춰 수많은 원격 교육 자료와 콘텐츠, 미디어 등이 쏟아졌지만, 집중시간이 짧고 개별 흥미가 존중되어야 하는 유아들에게는 정형화된 원격 교육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누리과정의 놀이중심 교육에 맞추어 각 반마다 개별적으로 유아들의 놀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전달하며 가정에서도 누리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급변하는 보육제도에, 교육과정에도, 평가제도에도 언제나 발맞춰 나가고 한 발 앞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CTV의 아래에서 작은 이슈만 생겨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고 진실은 밝혀주지 않는 아님 말고 식의 언론보도와 일부 자격 없는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으로 인해 전체 보육교직원이 오해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울고 웃으며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있습니다.

보육·유아교육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미래유아학교에서는 어느 지역·기관에서든지 균등한 보육·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